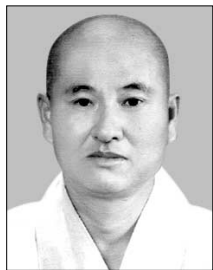


경제위기 확산, 과거사 청산 공방, 수도이전 논란, 병역비리 파문, 남북 핵문제 등을 대한민국은 지금 수라장이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나라가 온통 발집 건드려 놓은 것 같아 머지않아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위기가 모두 대통령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산사에까지 들려온다. 물론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대통령과 정쟁으로 밤그릇 찡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변명해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정치 혼돈과 경제 난국 앞에서 누가 과연 그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가.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심리현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한 해이 부끄럽다. '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너로부터의 혁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신라의 총대 스님은 나라의 태평을 묻는 임금에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고 답했다. 그렇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위기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국민민복을 책임져야하



불자 세상보기

월 암 동국대 선학과 강사

'교육' 부터 살리자

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희생과 봉사로 국민을 섬겨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또한 국민답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 수준과 비례한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자.

오늘날 국가·사회적 어려움이 어느날 당장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보듯고개를 면하고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달러의 파이를 얻었다. 이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전통을 소홀히 했다. 국민소득 3만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바로 서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정신이 바로 서있지 못한 국민에게는 3만불 시대가 오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것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한다. 수천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에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속에 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 구성구석에 병리현상이 만연해 있다.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에 휩싸여 상생의 정치가 사라졌다. 기업윤리가 말살되고, 교육이 실종 된지 오래며, 가정은 뿌리째 흔들리고,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 자살률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면적 붕괴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교육이다. 가정교육이 오도되고, 학교교육이 변질되고, 사회교육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교육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경제부국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한낱 모래성의 환상일 뿐이다.

다시 시작하자. 조금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어른들이며 회초리를 들자. 역사와 사회 그리고 양심 앞에 회초리를 들어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치자. 그런 연후에 피문은 그 회초리로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자.

교육은 백년의 계획이라 하지 않았던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弘益人間) 인간교육,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饒益衆生) 생명교육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롭다. 또한 면목없고 부끄럽다. 한 고등학생의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처절한, 그러면서도 의연한 투쟁이 결실을 맺어 자신 뿐 아니라 전교생의 예배 참석 자유를 확보해 주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느끼면서도 그저 어쩔뿐 넘어갔던 문제에 단호하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이러한 쾌거를 이루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왔던 기성세대들, 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돌아보려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종교 간의 갈등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포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종교인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갈등이 표출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적 군은 종교의 자유란 모든 이들에게

강의적 군에게 박수를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러하기에 다른 이의 종교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포교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준 강군의 투쟁은 더욱 높이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 일이 기독교계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기독교계가 위축되거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올바른 선교의 길을 걷도록 해준 강군에게 감사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불교계도 이 일을 공격적인 개신교의 선교에 대한 경종으로만 여기면서 남의 집 불경경하듯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된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성을 지니고 있는 불교의 특성을 발휘하여 다원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화합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강의적 군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또 그가 이루어 낸 값진 승리가 모든 교육기관과 공공 기관에서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귀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 성태웅(한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性的 가치관

남이 내 어머님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240건의 성매매영업과 468명의 성매매사범이 단속에 걸렸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엔터스가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인터넷 투표 결과 9월 30일 현재 83%의 응답자가 '어떤 법으로도 성매매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지어는 범죄업종이 생겨나고, 음성적 성매매로 인해 에이즈 등 성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성매매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도 매춘은 존재한다. 성매매 근절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성매매의)공급과 수요를 차단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나이다. 법제도적인 장치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부터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근본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 곧 지름길이다.

■ 한명우(취재부장)



독자투고

우리 함께 대응도의 자리로

지난 봄 조계사에서 '간화선 증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가 열리고 있을 때 신문사에서 내놓은 선(禪)특집 부록의 제목 '선의 황금시대 활짝 열렸다'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했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있는 오늘날의 불법을 선의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들의 앞날에 선의 황금시대는 기대할 수 없는 이치가기 때문이다.

선이고 교이고 간에 이 시대의 불법이 참으로 혼란스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참선이든 경전이든 다만 행하는 것만 있고 행하여 얻는 결과-깨달음은 없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열의 하나로 30년 내지 50년을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참선은 조사관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진 상태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마음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사관을 풀어나갈 수 있고, 조사관을 풀어나간 자리에서는 마음길이 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째로 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오직 간화선만이 깨달음의 길이요 역대 조사의 명맥을 이어온 바로미터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본말(本末)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빈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간화선은, 흥왕하던 대조선의 기세가 다소 주춤했던 송나라 초기를 전후해서 크게 대중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다. 대조선은 원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도의 자리에서 들어보이신 선사들의 일용사 모든 것이다.

묵선의 방과 입제의 활, 그리고 '물 앞에 져나뉘니라' '마른 통막대기나라' 등... 선사들의 공안들 중 다소로 선정하여 추구하는 방법과 저마다의 소견을 덧붙여서 하근기의 사람들 앞에 내놓아진 것이 간화선인데, 마조 백장 황벽 입제 위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제일의 정진

산 양산 남전 조주 덕산 운문 법안 등 정향 선사들이 화두로 깨진 적도 없고, 간화선법을 하라고 일러준 적도 없다.

예로부터 돈오점수의 양 문은 천성(天性)이 밝아온 귀철(歸鐵)인데, 언제부터인가 제방에 분분한 얘기로는 규봉 선사, 보조 국사, 법용 선사 같은 분들은 돈오점수 법이어서 아니고, 오직 간화선만이 돈오문수 법이라며 실제로 정진해 가는 행상은 증생심으로 소승도의 행을 닦아가고 있을 뿐 대승신, 대승도로 나아가는 구석은 없는 것 같다. 하물며 부처님의 광장무애한 법문의 문 문마다, 역대조사의 간결명료한 직지언구(直指言句)의 구절마다 일승대도의 자리로 환히 이어져 있고, 그

리한 문자어구 밖에서 또한 무문(無門)의 대도가 사람 사람의 다리 아래 요연히 드러나 있는데도 말이다.

조계종에서 현재 <금강경>을 중도들의 소의경전으로, <육조단경>을 선가의 종지(宗旨)로 삼고 있지만, 다만 읽고 외우기만 할 뿐 대승신, 대승도로 나아가는 정진은 없다고 나는 보고 있다.

곧 세상일을 여의지 않고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제일의 정진인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일에 머물러서 불도를 통달하려면 대승보살도의 길이다. 그래서 이념(二乘)은 생사를 벗어나서 가상열반에 머물러도, 보살은 생(生)이 곧 무생(無生)임을 깨달아 생사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번뇌속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 속에서 열반을 누리려 불 속에 핀 연꽃으로 마침내 사들지 않는 법이다.

밖을 향해 분주히 배우고 열심

수행한다면 역겹의 세월동안 범부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조용히 내면의 자리로 돌아와 살펴 들어간다면 잠깐 사이에 중생제물의 근원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머리를 가지고도 동서남북으로 신을 넣고 강을 건너 머리를 찾아 헤매 왔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그렇게 머리 찾아 헤매는 한, 머리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머리 찾아 헤매는 일을 그만두고 머리를 찾아야 한다는 근심걱정들도 놓아버릴 때, 머리는 저절로 목 위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운거 스님(지리산 성지토굴)

'연대' 민명

심민섭



법인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사불수행반 개강

'부처님 그리면 부처님 닮습니다'

"사물은 부처님 그리기와 참선이 하나로 된 수행입니다. 불보살을 그리는 행위와 통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Table with 3 columns: Item, Date, and Details. Includes '개강일시', '교육장소', '강의시간', '교과목', '지도법사', '회비', '기간'.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니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미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환승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Table with 3 columns: Item, Date, and Details. Includes '개강일시', '장소', '지도법사', '내용', '대상', '수련동참금'.

문의: 사무국 ☎ (02)732-1206~8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www.drso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프로 사주박사 (www.drsoju.com)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원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